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여 필승불패하는 조선

이 땅에 또다시 찾아온 6월 25일.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건만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날이다. 전쟁이란 말조차 모르고 자라난 세대들도 세월의 이끼속에 파묻힌 72년전 그날을 무심히 대하지 못하고 있다.

기적의 전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조국해방전쟁의 그 3년간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생들이 싸우며 죽어 이 땅에 잠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혈육을 잃고 흐르는 피눈물로 이 땅을 적시고 적시었는가.

산아엔 흠보다도 탄피가 더 많이 쌓이고 강철엔 눈물과 피가 흘렀으며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날들이었다.

하기에 공화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조국해방전쟁참전자의 한사람이었던 조기천은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토로하였었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 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방금 섰던 3층벽돌집은 아스팔트길에 거꾸러지고 반나마 타버린 가로수들은 허리부러져 길바닥에 덩구노니... 북남 3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이 타고있는 조선!

...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교통의 상치때문만이 아니다. 그 날에 새겨진 억척불변의 신념이 뼈속깊이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가릴치 못할 지난 세기 50년대 전쟁의 그날로부터 강산은 많이도 변했다.

하나 그날에 우리 겨레의 심장마다 새겨진 신념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정말 그랬다.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후 벌어진 가장 치렬한 전쟁이었다.

미국이 리승만도당을 사족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을 때 세계는 숨을 죽이고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의 운명을 두고 걱정과 위기의 시신을 보내었다. 그것은 공언한 우려가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110여차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차례도 패하지 않았으며 세계 《최강》을 떠들던 제국주의 우두머리였다. 여기에 저들의 15개 추종국가무렵까지 조선전쟁에 들어밀었다.

반면에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불과 5년, 공화국이 창건된지 2년, 정규군을 창건한지도 고작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였다.

인구수와 평토의 크기, 경제력과 무장장비 그 모든것에서 너무나도 대비가 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조선전쟁을 두고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하였겠는가.

침략세력이 공화국을 얼마나 잘잡아보고 기고만강했는가 하는것은 세계에 대고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조선의 운명은 《72시간내에 결판》 난다고 호언장담한 사실

이 잘 말해주고있다. 하지만 승자가 누구인가는 전쟁개시 첫날에 벌써 정해져있었다.

공화국에는 듣기만 해도 가슴 후련한 하나의 일화도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그날 공화국의 전반적지역에서는 대지를 한껏 적시며 비가 내리고있었다.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를 예견하시었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미국과 주자들이 끝내 전쟁을 일으켰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의 얼굴은 누구나 할것없이 모두 굳어져있었다.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 이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판가리결전에 나서야 하는 준엄한 시각이 닦쳐왔던것이다.

회의장의 공기도 얼어붙은것같은 그 시각 북도쪽에서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그에 뒤따르는 호랑만 웃음소리와 위엄있게 울리는 발걸음소리.

긴장한 공기가 흐르던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간에 돌변했고 사람들의 얼굴에 심심찮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 30대의 청년장군, 100만 관동군을 휘둘러라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벌써 승리를 내다보고계신다. 우린 이겼다! 진정 천만대적이 달려들어 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백두산장군만이 지닐수 있는 배짱과 담력앞에 회의참가자들은 풀이 넘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처럼 공화국을 넘고도 무분

별하게 덤벼든 침략세력들은 전쟁 첫날에 벌써 그 비참한 말로가 결정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수호의 결사전에 떨쳐나선 인민과 군대들 굳게 믿으시고 전쟁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전법과 비상한 명군술로 침략자들에게 단호하고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기시였다.

공화국의 진짜 힘을 보지 못하고 허장성세하며 침략의 더러운 발을 들이밀었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3년간의 전쟁에서 참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끝끝내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말았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술 사상과 군사전법, 비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조국과 인민에

세계최강의 군력을 다지신 탁월한 령장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맺은 그날로부터 장장 반세기가 훨씬 넘었다.

그러나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미국의 흉심은 변함이 없으며 반공화국암살책동은 더욱 집요하고 로골화되고있다.

가스로운것은 수십년전 이 땅에서 쓰디쓴 패배를 맞은 자들의 후예들이 세기를 이어가며 이루지 못한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망이 영원히 실현될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의 패배가 필연적인것은 상대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세운 정책, 공화국에 대한 무지로부터 출발한 허망한 정책이기때문이다. 자기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언제나 패하기마련이다.

70여년동안 맞서는 공화국을 너무나도 모르는것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패할수밖에 없는 기본원인의 하나이다. 다 아나와 같이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의 체현자이시고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절세위인들께서 공화국의 반제반미대결전, 조국수호전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시였다. 그 품속에서 이 땅의 아들딸들은 가장 용맹한 투사로, 누구도 당할수 없는 강자로 자라났고 공화국은 절대적힘을 지니고 군사적강세를 떨치는 초강대국으로 행성우에 우뚝 솟아올랐다.

두해전 7월, 제6차 전국로병대회의에서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지금도 귀전을 울린다.

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이 날은 빛나는 결실이다.

연제인가 보르투갈 전 대통령 고메스는 조선전쟁에 대한 자기 소감을 피력하면서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편에 선 서방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사전문가들이 수습명의 장성들이 여러 차례 모여 작성한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장군은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였다. 그분이시아말로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시며 위대한 령장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공화국인민들은 3년간의 피어린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보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이라고.

오늘의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갖 창건된 공화국을 알잡아보고 덤벼들었던 1950년의 그때와는 대비도 할수 없게 엄청나게 강해졌다.

1950년 제국주의의 침략에 기껏 해서 보병총을 들고 맞섰던 공화국군대의 수중에는 지금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이 다 쥐어져

있다. 공화국은 가장 강력한 열핵무기도 보유하고있고 각이한 사거리의 운반수단, 공격수단들도 다 가지고있다. 세계에서 그 개념조차 없는 초대형방사포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도 시험발사에서 대성공하여 공화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였다.

오늘도 온 나라 인민들은 다시는 그 누구도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지 못하게 하시려 자위적국방력강화의 길에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시기 위해 머나먼 날바다길을 헤쳐오시고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서서서 알장에서 결연히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또 언젠가는 산악같은 파도도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몸소 단정의 조라를 잡으시고 한치한치 배고가시며 돌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자멸이다. 만리길을 왔다고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보다도 못하다고 심신을 가다듬으시던 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생명을 내대야 하는 희생적인 헌신의 한결같은결심을 이렇게 내걸으시였다. 그 길에서 온 세계를 진감시킨 력사적사변들인 《3.1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이 일어났으며 오늘에는 세계적수단과 방어수단이 다 쥐어져

직접을 공화국이 지니게 되었다. 바로 그래서 이 나라 인민들은 지구를 박하고 련속 추구쳐오르는 주체무기들의 장쾌한 울림을 무심히 듣지 않는다.

그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결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희생적인 헌신으로 떠올린 천하제일의 힘이때문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고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있다고,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강화를 위한 목표점령을 더욱 앞당길것을 재촉하고있다고, 자위권은 곧 국권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서서서 알장에서 결연히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또 언젠가는 산악같은 파도도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몸소 단정의 조라를 잡으시고 한치한치 배고가시며 돌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자멸이다. 만리길을 왔다고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보다도 못하다고 심신을 가다듬으시던 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생명을 내대야 하는 희생적인 헌신의 한결같은결심을 이렇게 내걸으시였다. 그 길에서 온 세계를 진감시킨 력사적사변들인 《3.1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이 일어났으며 오늘에는 세계적수단과 방어수단이 다 쥐어져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강국, 절세위인께서 떠올리신 절대적임, 세계적인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초강대국,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지닌 무적필승의 강국이 바로 공화국이다. 이것은 바로 보지 못하고 감히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도발자, 침략자들은 일격에 소멸되고야말것이다.

천하제일명장의 탁월한 령도를 받은 공화국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전승의 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영웅한 조선인민군인들



무적필승의 최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상을 떨친다.

사랑의 불사약이 낳은 황남의 힘

건국 이래 대동량이라고도 할수 있는 약성전염병위기 상황이 조성되어 공화국각지에서 방역대전을 힘있게 벌려가는 속에 황해남도에 급성장대성전염병이 발생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또다시 발생한 전염병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불사약들이 해주시에 도착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의 웨침이 터져나오고 거들거들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온 황남명의 주민들이 눈물을 적시였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지난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약품을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

리던것이 어제일만 같은데 또 다시 뜨거운 육친의 정이 깃든 약품들을 받아안았으니 누군들 감격에 목메이지 않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약품을 받아안고 꿈만 같이 제 살을 꼬집어보니까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곱같은 현실앞에 고마움의 인사보다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셔야 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황해도 인민들때문에 이렇게 거들 마음쓰시게 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송구스럽지만 합니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이 약품은 죽음을 이기는 불사약입니다. 이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고보니 금시 병이 다 나은것만 같습니다.》

《약품들의 진가를 어찌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투철한 신조를 지니시고 뜨거운 열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따뜻이 안아 보살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이 땅에서 위민헌신,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들이 려이

어 펼쳐지고있다. 어로부터 사랑은 악을 이긴다고 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어 어떤 병마도 공화국인민을 쓸어뜨릴수 없는것이며 이 땅에서는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덕과 정이 날로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는것이다.

지금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황해남도의 전염병발생지역 인민들에게 지성어린 지원물자들과 의약품들을 보내주고있다.

이속에는 나이많은 전쟁로병들도, 소학교의 나 어린 소년단원들도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격정하시는 황해도인민들을 돕는것은 백성의 응당할 도리라고,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것이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응당할 본분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절세위인의 육친의 사랑,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지성은 황해남도인민들을 보답의 일념으로 풀여넘치게 하고있다.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도안의 수많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거들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거이어 충성의 노력정성으로 보답하자고 한결같

이 절기해나서고있다고 하였으며 강령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군안의 모든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은 당의 크나큰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세계를 뛰어넘어가고있다고 흥분을 금치 못하였었다.

강령군 봉오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은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거여이 대풍을 안아왔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격의 바다, 눈물의 바다를 이룬 황남이 이런 굳은 맹세를 안고 거여히 일떠서고있다.

황해남도인민들은 류레없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본면적의 모내기작업을 끝낸 그 기세로 알곡중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알고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 김매기로 온도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일꾼으로부터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영농공정법에 따르는 이별, 주별계획을 어김없이 넘쳐수행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이 나라 인민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위훈창조로 떠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위민헌신이 있어 공화국인민들은 난관과 시련앞에 주저앉거나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멀마전 길을 걸어가는데 등뒤에서 찾은 울음소리 들려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거기 좀 서십시오.》 뒤돌아보니 팔에 적십자원장을 두른 화선군가의 나를 향해 뛰여오고 있었다. 요즘 시내의 약국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었다.

《잘 찾았나요?》 《고맙습니다.》

급히 다가온 군의가 숨가쁘게 물었다. 《이차 저 약국에서 어린이해열진통물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도 술한 손님들을 대상하다보니 사람을 삭갈린 모양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 아니에요.》 《분명 그 아주머니 같은데...》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얼마나 바쁘지 약품매대에서 항생제와 수액제를 사서 가방에 넣으면서 이 약을 떨구어놓고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군의의 눈에는 안라까운 마음이 짙게 어려있었다. 《안됐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꼭뵈기 거수경례를 하고 그는 되돌아서는것이였다. 돌아서서 몇발자국 옮기는데 방금전 나를 불렀던 그 목소리가 또다시 울리는것이 아닌가. 《아주머니!》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대 군의는 저쪽에서 또 다른 너인을 멈춰세운 채 이야기 나누고있었다. 얼마후 그 너인도 도리머리를 짓고 돌아섰다. 하지만 군의는 심마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났다.》

이름모를 녀성을 찾아 뒤쫓아온 군의. 그것이 어찌 그 한사람

을 위한 걸음이었는가. 불현듯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받고 수도의 약국들에 일제히 전투화지를 옮기던 화선군들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복무의 길에 서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가닿게 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품여버치는 열망일것이다. 그 불같은 마음을 안고 앓는 전쟁로병을 위해 밤거리를 달리고 고열로 쓰러진 어린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여가던 군의들. 그 걸음은 우리 집에도, 옆집에도, 아니 우리 인민모두에게 가닿고있다. 그 걸음과 더불어 군의들은 부른다. 《아주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동무!》, 《애야!》, 《반장아머니!》... 그 부름이 어찌 다른 사람을 찾는 목소리라고만 할수 있으랴. 그것은 힘들세라 어려울세라 따듯이 보살피주는 위대한 령도자의 따뜻한 손길, 자애로운 어머니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안고 나라 부르는 소리, 온 나라 인민을 찾고 부르는 소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느라니 불밝은 수도의 밤거리가 더욱 유정하게 안겨들었다. 나는 가슴속에 그토록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안고 걸음을 다그쳤다.



유려정



이름모를 녀성을 찾아 뒤쫓아온 군의. 그것이 어찌 그 한사람

김래봉